

20세기 전반기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과 굴절*

강명희**

[국문초록]

19세기 후반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한국에도 자유주의사상이 소개되었고,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틀(frame)을 제공해주었다. 이 시기 형성된 개인의 자유와 민족·국가의 독립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조화론적 사상기조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무단통치하에서 폭발한 3·1운동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국내의 자유주의적 독립운동은 철저히 억압되었다. 식민통치 상황 속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운동보다 문화운동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담론이 전개되었고, 그것은 전통적 유교문화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적 가족제도 하의 피해자인 여성과 청년층의 인권을 회복하고, 사상혁명을 고취하는 신문화건설 내지 신사회 건설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1920년대 중후반 소위 ‘문화통치’ 정책 하에서도 자행된 일제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세대학교 교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주제어: 자유주의, 개인주의, 언론의 자유, 신문화운동, 문화주의, 『개벽』,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Liberalism, individualism, freedom of speech, the New Culture Movement, Gaebgyuk magazine, culturalism, new liberalism, socialism, economic liberalism

의 고문과 언론 탄압에 저항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쟁취운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의 전국조직이 결성되어 이 운동의 한 축을 구성하였으며, 변호사들의 조직도 언론자유 획득을 위한 합법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유력한 신문 잡지들은 이 문제를 식민당국의 부당한 통치의 상징적 이슈로 간주하고 언론자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팻쇼체제 하에서 이러한 당위적 목표를 제기하는 것조차 강한 탄압을 받고 운동은 쇠퇴하였다.

1920년대 이래 사회주의 사상의 흥기로 인해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동일시되며 배척의 대상이 되었고 자유주의적 운동은 자유주의 이름을 표방하지 못하였다. 해방 후에야 ‘자유주의’를 모색하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사회주의와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유주의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민족주의와의 불안한 연합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존재를 유지하였다.

1. 머리말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용한 근대 서구의 정치사상 가운데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또는 보수주의)가 정족지세를 이루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망국에 처한 한국의 경우에는, 보수주의가 변혁을 추구하는 ‘신사상’의 대세에 대처하는 뚜렷한 흐름을 이루지 못하였고, 대신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함께 양대 주류 사조를 형성하였다. 근대 서양 정치사상의 주류이며 한 중일 삼국의 근대화 초기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자유주의 사상은 삼국의 근대국가 건설의 기본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기 동안 시종 환영 받지 못하고 주류 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¹⁾

1) 일본의 경우, “자유주의는 메이지 이후 사회의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있듯이 근대화의 이념적 기초였지만 일본식으로 변형된 국가주의적 자유주의였으며, 1930년대 이후 자유주의의 ‘전략’을 논하는가 하면, ‘도대체 전략할만한 자유주

해방 이후 한국 근대사상사 연구 분야에서 자유주의가 중시되지 못한 것은 물론 주류 사조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집중되었던 관심의 상대 면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북한정권과 대치하던 남북분단 상황, 게다가 제3공화국 이후 개인의 자유가 탄압 받던 상황에서도 자유주의 사상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침해를 비판하기보다, 사회주의 사상으로써 반체제의 사상적 지주로 삼는 양상을 드러내었다.²⁾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고는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친 비교적 긴 시간대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된 한국의 초기자유주의의 형성과 좌절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자유주의 성격을 탐색하며 본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그것을 보호,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주권재민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며, 그것을 확보하고 감독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이 개인주의로 지칭되었든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했던 모두 자유주의적 운동으로 파악하였다. 전통사상과 윤리체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조선의 신문화운동과 자유 경쟁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지향은 일제강점기 한국 자유주의 형성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었다고 본다.

한국에의 자유주의 사상의 도입기 주로 『서유견문록』,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민권, 인권 사상의 수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³⁾ 그러나 계몽기인 개화기에 뒤이은 자강기 즉 20세기 초 자

의가 있었는가, 왕성한 때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제기 내지 토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정선(2004), 「다이쇼민본주의의 재평가」, 『동양사학연구』 제87집, pp. 222-226 참조.

2) 권희영(1999),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한국 자유주의-한국 자유주의 연구 서설」, 『한국사학』 17집; 문지영(2004),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연구: 문제와 대안적 시각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문지영(2009), 「자유주의」, 강정인 외,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강과 독립의 대의를 치열하게 모색하던 대한제국기에 많은 학회지와 잡지류가 발행되며, 부강한 나라의 ‘방법’ 즉, 자유주의 제도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다.⁴⁾ 물론 일부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절박한 노력은 대중에게로 널리 확산되지 못한 채 일제의 탄압 하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제 강점기 한국자유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며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식민통치라는 특수상황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시도가 어떠한 변주를 이루며 전개되었는가 밝혀지고 있다. 본고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팻쇼체제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은 과연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며 그 성격을 형성해 갔는지 큰 흐름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조화론적 자유권 개념; 개인과 국가

동아시아의 자유주의는 개인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부강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로서 수용되었다는 문제가 제

3) 김도형(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집; 이나미(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안외순(2002), 「19세기말 조선의 민주주의 수용론의 재검토: 동서사상의 융합의 관점에서」,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박주원(2004),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사회개념의 탄생」,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정용화(2003), 「서구 인권 사상의 수용과 전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이정식(2003),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도형(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인권신설』과 『장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7집.

4) 이 시기 자유 민권 사상에 관한 법학사적 연구로는 김효전(2009), 「근대 한국의 자유민권 관념 - 당시의 신문잡지의 논설분석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7집 4호; 「자유·평등·박애와 근대 한국」, 『헌법학연구』 15권 2호가 있다.

기되어왔다.⁵⁾ 대한제국기에 사회진화론이 유행함으로써 형성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추구한 뚜렷한 목적의식은 전통적 사유방식인 유교적 가치체계와 매우 이질적인 문명인 구미의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는데 따르는 난관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自由之權을 인정치 않으면 필히 無進歩之日’이라는 인식이 쉽게 확산되었다.

조선의 자유주의 소개 과정의 선구자들인 박영효와 유길준은 유가적 사유방식의 기초 위에 조화론적으로 개인의 자유 권리와 평등사상이 국가의 독립과 보전의 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박영효는, ‘民에게 자유의 권이 없고 君權이 무한하다면 … 쇠망할 것’이라거나, ‘백성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나라와 백성에게 평화와 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유와 통의의 권리는 … ‘하늘이 부여해준 도리’, ‘천하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라는 천부인권적 자유주의사상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서 자유주의적 정강을 선포한 한국 자유주의의 선구자들이었다.⁶⁾

이에 비해 서재필과 윤치호로 대표되는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의 활동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죄형개인주의, 영장제도, 공개재판, 판결증거주의, 재산의 보호, 신체와 재산의 자유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권 등 자유주의 기본요소를 대중에게 계몽 선전하여, 한국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민중 속으로 전파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⁷⁾ 이 시기 자유주의 선구자들의 사상은, 군주의 전제정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관념은 중시되지 않았던 군민공치(君民共治)적 체제의 모색이어서,⁸⁾ 자유주

5) 페어뱅크 존 F·골드만 멀(2005), 김형중·신성곤 역, 『신중국사』, 까치, pp. 313-316; 水羽信男(2007), 『中国近代のリベラリズム』, 東方書店, pp. 9-13; 章清(2004), 『胡适派学人群与现代中国自由主义』, 上海古籍出版社, pp. 5-27.

6) 김도형(1999), pp. 57-63.

7) 이정식(2003), 이나미(2001), 정용화(2003) 참조.

의자들이라 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민중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인민주권론이나 인민참정권 등 민주주의 요소에도 소극적이었다.

한말의 자유주의 모색은 ‘자유주의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외세와 군주정, 보수세력과 급진개혁세력이 일으키는 격랑 속에서 표류하였지만, 천부인권사상의 소개만으로도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될 수 있다는 사상이 계몽되었기에, 큰 사상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독립협회의 운동이 중단된 후에도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에도 지속적으로 자유와 권리 사상을 계몽하는 논설이 게재되었으며, 특히 1905년 이후 국가존망의 위기상황에서 다시 국가의 자주독립과 개인의 자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소위 ‘자강기’라 일컬어지는 한말, 특히 을사조약 이후 국권이 사실상 상실된 절망적 상황에서 각종 학보가 수다히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합병 이전 약 3~4년간 간행된 『대한자강월보』, 『대한협회회보』, 『기호흥학회월보』, 『대한학회월보』, 『태극학보』, 『대한흥학회』, 『대동학회월보』, 『서우』, 『서북학회월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나타난 주된 특성은 조화론적이라는 것이며, 이는 당시 국가주의적 지향과 법실증주의적 자유권 관념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권은 국권의 기초’라는 인식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 문제를 연계하여 개인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하였다. 이것은 물론 19세기 말 이래 박영효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로 이어지는 한국 자유주의 선구자들의 기본적 자유주의 인식이기도 했다. 자강기 언론에 自由의 상 관어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自主와 獨立이었다. 국권의 수호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 권리 확립이 국가 독립의 기초가 된다는 명제는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였다.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은 생소한 것일 뿐 아니라

8) 김도형(1999), pp. 85-87.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의 영향 속에서, ‘자유자강하야 독립불기’ 즉, 자강을 모색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자주 독립의 민이 바로 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수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논자들을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우선시하며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금 육주 대세가 국민이 독립자유 사상이 없는 곳은 인종을 보존하지 못하니 … 망함을 면하는 것도 그 국민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부강도 그 국민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로다.(남궁식 1907)

… 대저 하늘이 민을 낳으며 고루 자유를 부여하였으니 … 민이 능히 그 자유를 향유해야 국이 독립을 보존이라(설태희 1906)

‘인민의 자유는 국가 독립의 원소’라며, 자주독립의 정신이 없고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는 명제는 수다한 논설에 부단히 반복되었다. 개화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천부인권사상이었으나, 자강기 법실증주의적 권리 개념이 급속히 그것을 대체해갔다. 평등한 인간의 권리는 ‘天生의 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인식은 독립협회 독립신문의 계몽 선전 이래 광범하게 확산되어 식자층과 대중의 자유 평등 관념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상제가 인간을 만들며 독립자유권을 부여하였으니, 자기의 독립자유권을失한자도 죄인인요 타인의 독립자유권을 뺏은 자도 죄인이라 … 각 개인의 독립심을 합하면 국가의 독립권을 성립할지라”⁹⁾는 설은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자강기 논설은 권리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¹⁰⁾ 천

9) 여병현(1908), 「국민자존성의 배양」, 『대한협회회보』 9호.

10) 玉東奎(1907), 「人民自由의 한계」, 『西友』 2호 1907.

부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다.

1905년 이후 자강기의 자유권 사상은 법실증주의적 개념으로 전환되어,¹¹⁾ 인간의 자유가 천부인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권리로서 자유권은 헌법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성립한다는 법실증주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타파강상이 자유가 아니라, 忠愛敬謹이 자유오, ... 완악난폭 행동이 자유가 아니오 **법률범위의 내에서 활동이 자유오** ... 자유의 문에 들어서려면 마땅히 먼저 자유의 지식을 연마할 지어다(<황성신문> 1907.1.23. 이하 강조는 모두 필자)

무법률즉무자유라하니 법률이란 자유의 보장이며. 무도덕즉부자유라하니 도덕은 자유의 표준이라. 사상자유 언론자유 출판자유 삼자는 인류진화의 근본이며, 자유는 국가의 干城 ... (友古生 1907)

자강기의 법실증주의적 자유권 개념은 국가주의와 연계되어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과 경쟁해야 했던 동아시아 각국에는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개인주의적 고전자유주의 문제의식보다 국가주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¹²⁾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 유보 내지 희생, 그리고 집단의 이해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논리는, 자유권은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약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법에 복종과 권리 측면보다 의무를 중시하는 국가 우선주의적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가토의 『인권신설』이 번역, 출판된 것은 1909년이나, 이 책이 일본에

11) 김효전(2009(2)), pp. 245-248.

12)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선구자들인 일본의 가토오 히로유키뿐 아니라 후쿠자와 유키치, 중국의 옌푸와 량치차오 그리고 쑨원까지 모두 이러한 지향으로 귀결되었다(강의화 저·손승희 역(2007), 『이성이 설 곳 없는 계몽』, 신서원, pp. 215-231; 閻潤魚(2007), 『自由主义与近代中国』, 新星出版社, pp. 2-18).

서 출판된 1885년이후 한국 지식인에 영향 미쳤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가토는 자신이 신봉하던 천부인권설을 부정하고 자유 자치 평등 이론은 망상이라며, 우승열패야말로 만물의 법칙이라 주장하였다.¹³⁾ 사회진화론, 사회(국가)유기체론의 수용의 결과 일본식 국가주의적 자유주의 개념이 한국에서도 사조를 형성하였다.¹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며, “우리 사회에 그동안 전파된 개인주의는 위험한 개인주의여서, 자기 이외에 아무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 인류, 국가, 민족, 사회에 대하여 의무 책임의 관념이 없고, 자기 일개인뿐인 자아적 개인주의 즉 극단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¹⁵⁾

일본 사상계가 ... 개인성이 점점 발전 향상하여 자유주의를 절규함에 이르러, 국가사상도 순차 진화하여 이전 특유한 절대적 애국성에 서양인의 자유적 애국사상을 가미하여, ... 개성발달의 중요함을 창도하여 서로 모순된 절대적 국가주의와 개인주의를 조화코자 하도다. ... 我韓 동포에게 ... 일언 각성할 것은 자국의 국체, 문명의 정도, 국시 여하를 불고하고, 한갓 세계문명국인의 사상을 모범하여 개인주의에 경향하면 이는 영원히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 ...¹⁶⁾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조된 것은 ‘진정한 자유’였다. “자립자영의 정신이 있음이 진자유라 ... 통일, 단체를 구성함이 가장 귀한 소자유가 될 것이다 ... 법을 멸시함이

13) 김도형(2007), pp. 178-184 참조.

14) 메이지 시기의 국가주의적 자유주의는 물론이고,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사상적 지주인 요시노 사쿠조 역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국가의 권익에 통합하고,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문제에 고심하였다. 정미량(2012), 『1920년대 재일조선 유학생의 문화운동』, 지식산업사, pp. 97-101, 한정선(2004), 김효전 2009(2), p. 248.

15) 塘南人(1918), 『우리 사회의 亂波』, 『學之光』 17호.

16) 友洋生(1908), 『일본의 문명관』, 『대한학회월보』 8호.

야만의 자유 …”이며 ‘가짜 자유’라 설파하였다.¹⁷⁾ ‘개인의 가치를 자각하며 개인의 향상심을 고취하여 그 진보 발전의 범위를 넓혀 자기를 충분히 실현하려는 개인주의’, ‘진정한 자유’로써 사회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진리아’의 개념과 표리를 이루었다.¹⁸⁾ ‘진정한 나’란 내가 속한 집단이 곧 ‘진짜 나’라는 인식이며, 나 일 개인의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사회 국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논리로 연결되었다.

사실 ‘리버럴’이라는 어휘에는 ‘관대한’, ‘아량있는’, ‘편견없는’, ‘신중함’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고,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상기하면,¹⁹⁾ 이성적으로 더 큰 자유인 민족의 자유에 개인의 자유를 합치시키려는 의도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게다가 19세기 말경 영미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목표가 성취되었기에, 다수 빈민의 개성 발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리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사조를 형성하였다. 자유주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존재의미를 중시하는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사회 공의 실현의 역할을 인정한 영미의 신자유주의 사상 경향은 동아시아인의 공사 관념 즉, 私를 억제하고 공을 중시해온 전통적 사유방식에 부합하였고, 제국주의 시대 국가중심의 근대화 이념을 제공하게 되었다.²⁰⁾

동아시아에 서구 자유주의가 소개된 시기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J.S 밀의 사상도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겸하여 중시한 공리주의 경향의 자유주의였기에 동아시아의 자유주의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17) 文一平(1906), 『자유론』, 『태극학보』 3호.

18) 김윤경(1927), 『개인과 사회』 『동광』 9호; 『자유에 대한 일고』, 『동광』 10호.

19) 루돌프 피어하우스 저, 공진성 역(2014),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자유주의』, 푸른역사, pp. 24-32.

20) 楊貞德(2011), 『自由, 自治そして 歴史 - 近代中國政治思潮における ‘個人’論 - 』, 村田雄一郎 편, 『リベラリズムの中国』, 有志舎, pp. 146-157 참조.

대한 조화론적 지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여기에 불륜출리를 위시한 독일의 국가주의의 영향이 증첩된 것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가 없으면 국가가 견고해질 수 없다고 믿어 개인과 국가를 조화시키기 위해 부심하였으나,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믿고 기대하였을 뿐, 개인과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데 대한 고려와 대책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과 국가의 가치를 조화시키며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 자강기의 자유 인식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이광수는 민족개조의 문제에 몰두하여 개인보다 민족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되 ‘국가에 대하여 모든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국민’의 국가나 단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할 줄 아는 자유를 지향하였다. 나아가 개성해방주의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나아갔다고 비판하며, ‘우리주의’라는 집단주의 도덕을 제창하였다.²²⁾ 김병로는, 국가 성립 존재의 총괄적 기초는 개인의 자유활동이라고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유’를 제시하여 자유의 보장이 초래할 혼란의 우려를 부식하고자 하였다.²³⁾ 개인보다 사회, 민족, 국가를 우선시 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지향은 자유주의 사상의 도입기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까지도 한국 자유주의 기본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²⁴⁾

21) 강의화(2007), pp. 223-231.

22) 이광수(1922), 『민족개조론』 『개벽』 23, 박찬승(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pp. 114-117.

23) 김병로(1931), 『국가의 근본의와 민중의 자유』, 『동광』 29호.

24) 이광수의 자유주의가 개인의 사적 자유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민족주의 지향으로 나타났던데 비해, 안창호의 자유주의적 관심은 보다 강력한 민족주의 지향으로 나타나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민족 국가에 봉사하고 단결하는 사회대공주의로 발전하였다(장동진(2005), 『식민지에서의 ‘개인’, ‘사회’, ‘민족’의 관념과 자유주의: 안창호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pp. 44-67; 정용화(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일제하 한국자유주의

3. 유교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추구

양반중심의 문벌과 신분질서 폐지 문제는 19세기 후반 갑신정변이래 개혁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나아가 유교의 윤리체계와 사상 독점이 초래한 사회적 문화적 근본문제에 대한 비판은 <독립신문> 특히 윤치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조선의 억압과 압제구조의 원인이 논쟁이나 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유교의 독점적 지배형태와 양반지배구조에 있다고 보았다.²⁵⁾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근대사회 건립을 위해 유교는 지양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광범하게 인식되고 있었지만, 유교를 배척하는 담론은 191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유학생들은 일본 사상계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사상체계가 혼효된 사회개조 지향과 함께 문화 예술 방면에서 개인의 감성과 인격 함양을 중시하는 소위 ‘문화주의’의 강한 영향도 받았다. 일본에서도 국가를 도덕적 유기체로 보고 개인은 그 일부분으로서 조화 속에 존재의미를 가진다는 의식형태 속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가주의에 종속된 상황에서 문화적 자유주의 내지 개성주의가 발전한 것이었고, 식민 통치 하 조선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논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적 측면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유학생들은 동양과 다른 서양사상의 특성으로 인식된 개인주의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인

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pp. 16-19). 윤상현은 이광수의 자유주의를 사회다위니즘과 결합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 보았다(윤상현(2013), 『1920년대 초반 식민지조선의 자유주의와 문화주의 담론의 인간관·민족관』, 『역사문제연구』 31호, pp. 339-342).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아시아 자유주의의 특징이다(한정선(2004), 姜明喜(2013), 『民国时代中国的新自由主义指向胡适派与研究系自由主义比较研究』, 『民国研究』 24. 참조).

25) 정용화(2006), p. 12.

『學之光』에 실린 많은 글들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의 사회 문화적 폐단의 변혁을 고취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송진우는, 개인의 자립을 제창하면서, 전통적 가족제의 구속을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가족제도는 … 인문이 미개하고 지식이 유치할 때 … 교활한 전제가가 법을 제정하고 가족제도를 이용하여 사회를 구속하고 지위를 확보코자 함에 발달된 것 … 개인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위력이 팽창한 현대에서는 가족제의 존재를 용인키 어렵다’고 주장하였다.²⁶⁾

가족제는 청년들을 관습에 묶어두어 사회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 청년들을 나태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될 것, 문벌을 가리게 하여 인재등용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 사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회와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가족제는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가족으로부터 개인의 독립을 설파하였다. 가족제에 대한 비판은 자연히 가족질서를 기초로 사회와 정치를 지배한 유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공교 타파와 국수 발휘를 주장하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유교는 모교사상의 원천이어서, 사회는 정제되고, 발전의 희망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 유교는 전제사상의 단서라, 민주사상이 팽창하여 자치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 조류에 부적합하다 … 유교는 … 타학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배타사상의 표현이며, 인류 평등의 진리를 고창하며 사상자유를 특색을 발휘케 하는 문명 이상에 반대된다.²⁷⁾

유교의 복고적 사상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평등과 자유의 현대 문명 가치에 저촉되는 전제적 배타적 이념으로서 배척의 대상으

26) 송진우(1915), 「사상개혁론」, 『學之光』 5호 pp. 4-5.

27) 송진우(1915), pp. 2-3.

로 제시되었다. 중국의 신문화운동이 유교적 전통 특히 가족의 속박으로부터 개개인으로서 청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취지로 시작되어 거센 충돌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변혁의 기폭제 역할을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함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⁸⁾

일반인들에게 있어 사실 정부로부터 오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보다 더 보편적인 속박은 유교윤리 지배하의 가족제와 사회적 압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해방은 개인의 사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 수 없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계층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자에 대해 여자, 연장자에 대해 연소자의 개성이 철저히 무시되던 현실은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향할 때,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였음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앞에서 인용한 <황성신문> 1907년 문장에 이미, ‘打破綱常이 자유가 아니라, 忠愛敬謹이 자유요 …’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과 자유 관념의 전파와 함께 유교윤리강상에 대한 도전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강기 필자는 이를 우려하여 충애경근이 자유라 진정시키고 있지만, 10년도 채 안되어 유교를 직접 비판하는 논조가 대세를 이루는 변화가 일어났다. 신문물과 신교육, 나아가 일본유학의 경험은 유교사상에 연계감이 미약한 신지식인을 성장시켰으며 유교의 봉건적 권위의 타도를 제기하는 주력이 된 것이다.²⁹⁾

이광수도 유교는 성인이 예법을 지어 서민들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복종만 하게 하는 것이니, 개인의식을 몰각케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비

28) 陳獨秀가 『청년잡지』(후에 『신청년』으로 개명)를 창간한 것은 1915년 9월이며,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 『광인일기』 등 유교에 대한 공격성 문장은 1917년, 18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송진우의 이 글은 1915년 5월에 발표된 것으로서, 중국의 신문화운동에서 ‘타도공가잡’을 기치로 유교사상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사상혁명이 발전하기 이전에 발표된 것이다.

29) 권희영은 1920년대 이후의 변화를 논했지만, 필자는 1910년대 중후반 이후 이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권희영(1999), pp. 24-25.

해, 기독교는 영혼을 구비한 각 개성을 중시한 결과 만민 평등의 현대윤리가 발전하였다며, 기독교가 조선에 가져다 준 선물이 개성의 자각, 개인의식의 자각이라고 설파하였다. 이광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취지에서 유교 윤리강상에서 요구하는 복종으로 인한 무자각적 서민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현대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보고 반유교적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³⁰⁾

현상윤도 “편파하고 고루한 주자학사상을 좀 떼어놓고 특 터진 사상, 특 터진 사회에 한번 살아보자”며 “구사상 구도덕 하에서 ‘나’라는 의식 생활의 중심을 잃고 반기계적 반동물적 생활을 했다”고 구시대를 비판하였다. 수백 년간 성인의 가르침이며 진리의 상징으로 숭상하던 주자학을 ‘편파하고 고루한’ 학문이라 비판하고, “조선사람이 현대문명의 중요한 특색인 물질주의를 모르고, 개인주의를 경시한다”고 지적한 것은,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권위의 타파와 개인주의 발전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상과 사회관계로부터 벗어난 사상의 자유와 평등의 제창을 ‘나’를 찾는 개인주의로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지향을 잘 보여준다.³¹⁾

구사상과 구관습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던 유교 윤리와 가족제와 결부된 조혼제도가 시급히 척결해야할 대표적 폐습으로 지적되며, 조선·동아 등 일간지의 사회운동으로 제기되었다. 양반제도 역시 조선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이며 망국의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개인의 자유추구는 구 지배세력인 양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신분 사회질서를 비판하며 개인주의를 옹호한 다음 글을 보자.

30) 박찬승(1999), pp. 101-102.

31) 박찬승(1999), pp. 98-99 참조. 중국의 신문화운동이 ‘민주와 과학’의 가치를 내걸고 서구식 ‘신문화’, 나아가 신문명을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인민으로서 개인은 관현의 노예에 불과하며, … 자제로서 개인은 부형에 무시되며, 연하의 개인은 연장자에게, 빈자는 부자에게, 상인은 양반에게, 농민은 사에게, 공상인은 농민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처는 남편에게 남김없고 빠짐없이 고루고루 무시되고 말았도다 … 이러한 사회상태를 생각할 때 일심결정으로 개인주의를 주창할 수 없다 …³²⁾

1910년 조선의 개인주의 내지 개인의 자유문제는 한편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였지만, 다른 한편 극단적 방임주의에 빠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보다 먼저 모든 개인이 자유 평등의 가치를 자각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주의의 기초를 정립하는 것을 당면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일본에서 유행한 개인주의 사조와 문화주의 영향 하에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인을 속박하는 유교사상에 대한 사상혁명, 유교적 가족윤리, 결혼제도, 사회신분적 불평등으로부터 탈피가 제기된 것이다. 전통타파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담론은 1920년대 초 조선에서는 『개벽』 잡지에 계승되었다. 조선 자유주의의 선구자 박영효는 『개벽』 창간호에 관준민비, 축첩, 미신이 가득한 현실을 비판하며, 미신과 악습을 타파하고 진리를 구할 것이며 … 日新사상으로 윤리를 해석하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 민족을 자유계로 지도하는 天·人·物에 대한 개벽을 이룰 것을 기원하였다.³³⁾

천도교청년회가 창간한 『개벽』지는 창간호부터, 가족본위 구문화를 초월하는 개인주의 문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유행으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표출됨을 지적하였다. 조상의 습관 인습에 무조건 복종하던 속박의 시대가 지나고 ‘다 같이 각 개인의 자유발전을 도모하는 기

32) 塘南人(1918), 『우리 사회의 亂波』, 『學之光』 17호, pp. 702-703.

33) 박영효(1920), 『開闢의 創刊을 聞하고』, 『개벽』 창간호(DBHT).

운을 부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³⁴⁾ 설득하였다. 『개벽』 2호는 논설에서 다시, 유교적 가족제도 속에 뿌리깊은 개성의 말살과 독립심 결여의 비민주적 문화를 청산하고, 개인주의 문화 건설을 다음과 같이 제창하였다.

조선사람은 자립자영의 독립심이 결핍되어 있고, 부모에 맹종하며 親業을 계승하는데 … 개인자유 의지가 속박되어 있고, 자유발전과 자유활동은 구속되어 있다. 가족제도로부터 생긴 인습적 인격구속, 인격압박을 초월하여, 개성의 자유를 발달시키고, 천부재능의 자유 발휘를 개방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립자영심을 양성케 … 노동의 자유적 가치를 표현하게 해야 한다.³⁵⁾

복종을 강제하는 유교 문화 속의 청년층의 독립심 결여와 함께 가족제도를 비판한 중요한 이유는 ‘부녀의 인격을 멸시’하는 풍토였다. 개벽 3호에 게재된 「가족제도의 측면관」은, “인격의 근본의의인 평등자유의 관념을 부인으로부터 탈취한 … 동양윤리는 … 그 극단의 말뚝은 여자를 일종의 기계, 일종의 노예로 취급 … 평등자유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 일종의 소유물로 사유하였다”며 전통적 가족관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부인멸시의 관념은 근대인격관념의 사상과 자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며, 근대적 사회관념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할 악습으로 제기하였다. 나아가 부인의 독립재산 제도와 부인의 직업문제를 거론하여, 부녀의 경제능력이 없으면 부녀의 평등자유의 독립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녀해방운동의 논리를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⁶⁾

34) 오태환(1920), 「급변하여 가는 신구사상의 충돌」, 『개벽』 1호(DBHT).

35) 『개벽』 2호 「논설」, 1920.

36) 滄海居士(1920), 「가족제도의 측면관」, 『개벽』 3호(DBHT).

『개벽』지는 계속, ‘장유유서의 말뼉로부터 유년 남녀의 해방을 제창할 개인주의’라든가,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윤리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정으로부터 박탈되어 …’ 있다는 문장을 게재하여 자유 평등의 근대 정치 문화와 병존할 수 없는 유교문화 전통을 극복하고 배척해야함을 주장하였다.³⁷⁾

1910년대 후반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지향의 반전통적 문제의식은 중국의 신문화운동처럼 조선에서는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된 역사적 상황 자체에서 형성된 ‘구문화’에 대한 불신과 ‘신문화’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같은 구미의 정치제도와 이념에 대한 호의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1910년대 말 상황은, 세계 1차대전 종결, 러시아 볼셰비키혁명, 민족자결주의, 유럽에서 자유주의의 진전으로, 조선의 지식인들도 세계질서 개편과 사회개조에 대해 긍정적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신문화운동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비로소 잠시 꽃피운 시기였다. 일본유학생들의 개인주의 지향은 주로 기존 유교문화 내지 결혼과 사회신분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아 일제 치하에서도 소수의 유학생 잡지를 통해 개진되었고, 3·1운동 직후 문화통치가 시작된 1920년 『개벽』잡지 등을 통해 계몽적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개벽』지는 ‘신사상’ ‘신문화’를 건립하려는 취지가 강했고³⁸⁾, ‘개인’을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취지에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자유 평등의 신사상을 추구하는 지향은 이 시기 이

37) 『개벽』 2호, 4호, 1920.

38) 최수일은 개벽지가 사회주의 계급운동을 주장한 것은 1923년 이후이며, 그 이전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화주의를 배경으로 문화운동을 주도했다고 보았다(최수일(2008), 『‘개벽’연구』, 소명출판, pp. 432-465 참조). 천도교측은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신문화운동을 추진하였고, 개벽, 신여성, 별건곤, 학생, 어린이, 조선농민, 혜성잡지를 발행하였다.

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막상 그 건설은 용이하지 않았고, 구사상은 힘을 잃어 혼란한 당시 상황을 한 『개벽』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몇 천년동안 유교 사상 - 삼강오륜 - 의 전제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사상계는 신사조 - 자유, 평등사상 - 의 유입으로 갑자기 해방을 얻게 됨에, 구는 파괴되고 신은 건설되지 못하여, 정치상 혁명의 시대의 그것과 같이 무정부-무질서의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 전제 계급의 구 낡은 사상과, 자유평등의 新, 신사상은 도처에서 충돌하고 있다. 어떻게 신을 건설할 것인가? … 자유비평과 과학적 태도로 사상혁명을 하여 비평의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과거 우리 사상계에 제일 부족한 점이다.³⁹⁾

당시 신문화의 추구가 유교윤리에 입각한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독점해온 공자와 주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사상혁명을 ‘자유비평과 과학적 태도’로 수행할 것을 제기하였다.⁴⁰⁾ 다분히 중국 신문화운동의 ‘민주와 과학’의 기치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구사상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넘어 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학습 요체로서 서양근대 자유주의 문명의 비판적 과학적 정신과 태도를 제시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18년 이레 3·1운동 후, 특히 1920년대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⁴¹⁾ 1910년대의 개인주의의 고취,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 대한제국 시기 계몽과 자강기의 권리개념의 확산

39) 양명(1924), 「우리의 사상혁명과 과학적 태도」, 『개벽』 43호(DBHT).

40) 北旅東谷 「東西의 文化를 批判하여 우리의 文化運動을 論함」, 『개벽』 29호, 1922; 「현중국의 구사상 구문학의 개혁으로부터 신동양문화의 수립에 他山の 石으로 현중국의 신문학건설운동을 이야기함」, 『개벽』 30호, 1922, 양명(1924).

41) 권희영(1999), pp. 11-12.

등 서구정치제도와 사상의 모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919년 3·1운동의 폭발적 전개와 그후 출현한 5개 임시정부가 모두 공화정체제를 표방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4. 사회주의의 대립면으로서의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수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자유’에 내포된 부정적ニュ앙스로⁴²⁾ 인해 일본의 사조도 자유주의를 표방하기보다 개인주의를 적극 계몽하였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았다.⁴³⁾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20년 창간된 『개벽』지는 1호에 「개인주의의 약의(略義)」, 2호에 「‘데모크라시’의 약의」, 3호에 「사회주의의 약의」를 게재하였다. 당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3가지 주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글인데, 1호에 게재된 「개인주의의 약의」가 분량과 내용면에서 가장 길고 상세

42) ‘자유’(自由)라는 용어에 내포된 ‘제멋대로’라는 뉴앙스로 인해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freedom이나 liberty의 번역어로서 중국에서는 ‘자유’보다 ‘자주’(自主)가 선호되었고, 일본에서도 ‘자유’라는 말은 나쁜 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야나부 아키라, 서혜영 역(2003), 『번역어 성립사정』, 서울: 일빛, pp. 170-181). 그러나 조선이 자유주의 개념을 수용한 1880~90년대 일본에서는 이미 ‘자유’란 말이 크게 유행하였고, 정치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주 독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자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용어가 배척받지 않았지만, ‘자유주의’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43) 관련에 한 한 1910년 이전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루소식 자유주의교육을 언급한 글(『대한자강회보』 10호, 07.4.25 류근 역술)과 구미 사조를 수입한 일본 사조를 언급한 “... 각 방면에 개인성이 점점 발전 향상하여 자유주의를 절규”라 한 사례가 있다(友洋生(1908), 『일본의 문명관』, 『대한학회월보』 8호(DBHT)).

하다.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라는⁴⁴⁾ 표현대로 자유주의에 대한 글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쌍생아’이며, ‘개인주의는 정신이며, 민주주의는 그 정신의 운용’, ‘개인주의가 목적이오, 민주주의는 그 종극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⁴⁵⁾ 개인주의가 자유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이해 방식은 곧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18년 러시아 볼셰비키혁명 성공 이후 연해주의 한인사회당, 상하이 의 고려공산당을 비롯한 다수의 공산주의 단체가 결성되면서 조선에도 공산주의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내에서 막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1922년 이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하는 글들이 자주 실렸으며,⁴⁶⁾ 공산주의를 민족의 진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조선노동공제회 등 노동자 전국조직이 결성되기(1920년) 시작했고, 신사상연구회, 화요회, 북풍회등 주요 사회주의 서클이 결성되었고(1923~24년),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1925년).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 대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코민테른의 세계혁명 전략 구도 속에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이 민족해방운동 성격으로 전개됨에 따라 조속한 당조직화가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 분위기 속에서 무산계급의 관점에서 본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는 이념으로 서술되었다. 자본가계급을 타도 대상으

44) 허영호(1925), 「자유인과 노예」, 『신민』 8호. p. 152.

45) 孤蝶의 『個人主義의 略義』(『개벽』 2호 1920)의 해석은 중국의 자유주의 선구자 옌푸(嚴復)가, “자유는 체(體), 민주는 용(用)”이라 파악한 것과 상통한다.

46) 예컨대 <동아일보>에는 1922.2.24~4.5일 사이에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1면에 11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924.2.26에는 서재필이 쓴 『개인주의와 협동주의』가 게재되었다.

로 제기한 사회주의사상은 자본주의 병폐로 호소력을 상실했다고 인식된 자유주의를 대신할 신시대의 신사상으로서 각광받았다.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자유주의는 자본가 내지 중산계급의 이념이며 이미 그 시대가 지난 이념으로 간주되었으며,⁴⁷⁾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파악되었다. “이기심-이것을 자유라 하였다-을 기초로 한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은 지나갔다. 지금은 칼 맑스의 자본론의 극성시대”라는 것,⁴⁸⁾ ‘자유주의는 반동의 지주로서 맑스주의와 상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대’를 지나 ‘자유주의의 비극’의 시대로 옮겨갔다는 인식이 구미에서도 만연하였고, 동아시아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유주의란 지지하는 바와 같이 산업상의 자유경쟁과 이념상의 합리주의를 토대로 하여 절대적 지배양식인 봉건체제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부르주아의 사상 무기였지만, 유산계급 내지 중산계급이 자유민으로서 배타적으로 자유권을 향유하며 노동계급의 자유권은 사실상 ‘노예 계약의 자유’에 그쳤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프랑스혁명에서 자유주의를 지지하던 제3계급은 봉건적 귀족 승려와 전제왕국을 타파한 후, ... 승리의 수확을 제3계급이 독점하고 배타적 반동을 감행하였으니, 이는 일반적 자유가 아니었고 자본가 계급의 자유일 뿐이었다. ... 사회적으로는 모든 개인의 권리가 옹호되며 계약의 자유는 신성하다 하나, 빈부의 차가 현격해질수록 부의 소유자 앞에 빈민의 권리는 옹호될 수 없었고 그 계약의 자유란 결국 그 개인의 자유의사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노예적 계약의 성립이었다.⁴⁹⁾

47) 20세기 조선 뿐 아니라 일본 중국은 물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도 자유주의는 이전에 보수주의로부터 받던 공격의 화살이 사회주의로 바뀌어, 부르조아계급의 사상이라 공격받았다. 피어하우스(2014), pp. 74-110.

48) 허영호(1925), p. 154.

49) 孤蝶(1920), 「個人主義의 略義」, 『개벽』 2호(DBHT).

자유주의 시민혁명의 결과가 자본가계급의 자유와 노동계급의 노예상태로 귀결된 것은, 혁명전개과정에서 계급이 아닌 人民의 이름으로 ‘인민의 자유’를 외친 ‘제3계급’을 무산자 인민이 지지했지만 자유사상을 말살한 제3계급에 의해 노예화되었다며, 그들이 고창한 ‘인간 해방’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것은 유산계급이 장악한 ‘입헌적 자유’에 의해 고착화되었다고 해석하였다.⁵⁰⁾

프로레타리아가 근대에 이르러 신흥계급으로써의 존립을 주장함에 이르게 되자 부르조아지는 봉건세력의 일부와 결탁하여 경제위기를 타개를 목적으로 한 경제상의 독점주의 따라서 정치의 절대주의로 전화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상 부르조아지의 정치상 절대적 우위권을 급력으로써 확립한 후에는 부르조아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멸된 셈이다.⁵¹⁾

19세기 후반 서구의 자유주의체제는 양면에서 모순과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사회주의 확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경쟁적 경제자유와 결과 초래된 독점자본의 발전이었다. “종래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자는 중산계급인데 … 무제한 자본 집중의 결과, 오직 대자본만 존속하게 되어, … 중산자는 자유주의를 고창하였으나 중산계급은 몰락하고, 자본적 자유주의도 몰락”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자본의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독점자본, 금융독점자본, 제국주의로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자유경쟁의 자유주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자유주의의 진정한 기초였던 경제적 자유 즉 상품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자유경쟁은 결코 영구불변의 자연법칙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단계는 이미 자유경

50) 擎山(1926), 『自由主義와 中産階級』, 『개벽』 66호(DBHT); 吳基永(1948), 『새 自由主義의 이념 - 독재와 착취 없는 건국을 위하여 -』, 『신천지』 24호.

51) 洪양명(1936), 『자유주의의 부흥』, 『삼천리』 8권 12호.

쟁의 자유주의 이념이 붕괴되어, 자유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보고, ‘사멸’ ‘몰락’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였다.

“자유주의 위기라 자유주의의 비극이라 … 자본주의를 적으로 삼는 공산주의가 이 자유주의를 경멸하여 그 역사적 제약성을 말하며 반동적이라 적대시 … 하는 것”이라거나, “소위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상 자유를 실현하려는 사회사상인데 … 공산주의자가 이것을 자유주의의 전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제상 자유는 자유의 한 종목에 불과하며,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주의의 일부파인 까닭이다”라는⁵²⁾ 시대비판은 해방 후에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위해 적극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자유주의는 등장하면서 바로 배척될 운명에 처한 부정적 개념이었고,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칭하였다.⁵³⁾

그러나 사회주의 사조가 이미 만연한 가운데 극히 드물지만 경제자유주의를 주장한 문장은 사회주의의 이론적 오류를 전반적으로 제기하고 비판하였다. 사회주의의 사유재산 폐지와 사회적 소유 및 평등 분배 주장 그리고 그 이론적 기초인 사회유기체론을 비판하고, 나아가 유물론과 계급투쟁론은 독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요컨대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사회는 진보하지 못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52) 오기영(1948), p. 45, 辛寧滿(1948), 『사상빈곤의 조선현실과 신자유주의론』, 『신천지』 통권 24호, p. 65.

53) 중국의 경우도 유사하여, 사상계가 사회주의진영과 자유주의진영으로, 다시 삼민주의진영으로 분화된 후인 1930년대이나 ‘중국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나타났고, 명명과 동시에 관뚜껑 달는 식이었다. 그 이전의 자유주의운동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다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명명되었다는 것이다(章淸(2012), 『1940年代: 自由主义由背景走向前台』, 『中国思潮评论-自由主义诸问题』, 上海古籍出版社, pp. 40-43).

… 무릇 활인간에는 자유가 있고 활사회에는 진보가 있으니, 자유와 진보는 실로 인간생활의 제1의인 경제자유주의가 있는 결과에 다름 아니한 것이다. … 개인의 자유는 인류생존의 요소이고 경제적 자유경쟁은 사회진보의 근본이다 … 경제적 자유를 환언하면 … 노동자측에서 말하면 단체가입과 조건 승낙여부 등의 자유이고 자본가측으로서 말하면 기업의 자유와 재산사유권 등을 지시하는 것이라 … 이러한 권능을 자유로 행사하게 되어야만 사회의 진보와 인문의 발달을 기할 수가 있다.⁵⁴⁾

또한 ‘국가의 법률로 개인간 자유경쟁을 제어코자 한 사례는 실패의 역사’라며, 자유를 발휘하여 재산을 축적하여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인간 천부의 품성을 충족하는 바이니, 사유재산제도는 철폐될 수 없고, 철폐된다면 진보도 어렵다는 논리이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코자 하면 대신할 것은 국가사회주의 외에는 없으며, 러시아의 전제관료주의와 공포정치 폐단을 지적하였다.⁵⁵⁾ 인간의 평등은 법률 종교 도덕에만 적용하되, 경제문제까지 이를 추급하는 것은 망론이라며 소득균일제를 비판하였다.

또 다른 필자는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노동자의 해방에 대해서 역시 비판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결국 다수 노동자는 소수의 지배자를 위해 노예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수의 지배’라는 허구 뿐 아니라, ‘다수의 소유’ 자체도 부정하며 국가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 토지, 노동의 국유와 노동가치를 만들어내는 노예적 국민 상태를 ‘자본주의의 절정’이라는 파라독스라 규정하였다. 국가자본주의에 의한 노예화의 완성이라는 것이다.⁵⁶⁾

사회주의국가에 내재한 이러한 자멸의 소인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

54) 朴和世(1928), 『經濟自由主義小考』, 『신민』 43. pp. 77-78.

55) 박화세(1928), p. 83.

56) 허영호(1925), pp. 152-154.

이라는 비판적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다수 민중의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것이라는 사회주의가 불우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 보다 먼저 지식인과 청년층을 사로잡았다. ‘20세기는 사회주의의 세기’라는 인식은, 곧바로 ‘자유주의는 19세기의 사상이며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믿음으로 고착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계급의식으로 파악하였다. “민족운동은 정치적 독립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며 계급혁명론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운동을 “중산계급의 경제적 세력 획득 운동일 뿐, 경제적 정치적으로 근본적 해방을 요구하는 무산계급의 사회운동은 아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⁵⁷⁾ 정치적 독립운동을 중산계급의 경제적 목적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비판한 것이다. “... 3·1운동 이후 민족부르조아지들이 해방투쟁을 배반하여 ... 자유주의는 싹틔울 겨를도 없이 그 역사적 지지자를 상실하였다 ...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는 해방투쟁의 무기로서 ... 발전의 조건이 없었다”는 지적처럼, 민족자본가계급은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사상적 자유의 주장은 군대 경찰 헌병 감옥 재판소 등을 지배하고 권력기구의 요직을 독점한 총독통치 아래 선진자본주의국과 같은 자유주의의 위력을 맛보지 못한 ...” 실정이었다.⁵⁸⁾ 중산계급의 자본주의적 성장이 다소간 진전되던 상황에서 이들은 일제통치체제 속에서 재산권 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로서 사적 자유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향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자본주의의 압도적 세력 하에서 발전의 장벽이 높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정치적 해방 투쟁을 이끌 만큼 계급으로서 결집되지도 못한 실태였던 것이다.

57) ST(1925), 『자유권과 생존권』, 『개벽』 56호(DBHT).

58) 김병덕(1948),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신천지』 통권 22호. p. 52.

5.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운동

3·1운동 후 기만적 문화통치에 뒤이은 팃쇼체제 하에서 민족해방투쟁은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형편이었고, 자유주의 ‘운동’이라 칭할 만한 것은 문화운동 외에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⁹⁾ 국내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획득을 위한 식민당국과의 투쟁을 들 수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자유주의 민주사회를 성립시키는 가장 관건이 되는 자유로서 계몽기 이래 파악하고 있었다. 앞에서 인용한 자강기 논설에도 “사상자유 언론자유 출판자유 삼자는 인류진화의 근본이며, 자유는 국가의 干城”하는 표현이 나온다.⁶⁰⁾ 흑자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와 정견의 발휘를 제지하면 반비밀결사와 사당을 발생시켜 국가의 폐해와 위험을 불가승하니 … 동서고금에 미개국가 가 공당의 자유를 방지하고 사당의 폐해를 양성한 자가 기하며 … 문명 각국은 … 공당을 인허하여 공명정대 행동으로써 정견의 언론을 자유케하니, 이는 사당의 위험을 예방함시오 …⁶¹⁾

일제 강점기 식민지 백성이 자유를 박탈당한 민족차별을 피부로 느끼는 가장 절실한 분야가 바로 재판과정과 사상 언론 계통이었다. 소위 문

59) 일제하 자치운동이 정치적 자유주의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론의 연장선상에서 일제에 타협적 노선(박찬승(1991),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또는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이(강정민(2005), 『자치론과 식민지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있다.

60) 友古生(1907), 「갑을 자유문답」, 『대한유학생활학보』 1호.

61) 윤효정(1908), <我會 本領> 12월 통상회 『대한협회회보』 9호(DBHT).

화통치 하에서 다수의 신문 잡지류가 출간되고 민족의 요구를 표출하고자 하였으나, 식민통치 당국으로부터 심각하게 통제, 금지당했기 때문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1924년 ‘언론집회압박탄핵회’가 결성된 것은 그 시발점이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는 곳에 문화의 향상이 없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는 곳에 대중의 힘이 말살된다 … 조선의 신문화건설의 길은 막히었고 대중은 분산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것의 큰 원인의 하나는 조선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⁶²⁾ 언론 출판 자유 확보의 당위성을 문화의 향상 내지 신문화 건설로 제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면에 숨겼다.

『學之光』은 유럽과 미국 소련 등 다른 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언론 집회의 자유에 관한 비교 연구의 형식으로, 각국에서 제정된 헌법의 근본 정신과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한 후 조선에서 이 중요한 자유 부재의 현실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일본헌법 제29조에,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의 自由를 有함’이라는 단 1조뿐으로 자유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 … 조선에 적용하면서, 일본 법률에 따르며 총독이 임의로 어떠한 명령을 발포하여 이를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制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명치 43년9월 칙령제276호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경무총장도, 어떤 범위내의 명령을 공포하여, 일반에게 구속력을 미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집회규칙)

… 일국의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권자의 재가를 얻어 … 발표한 뒤에 시행하는 법률도 오히려 모든 미비와 편파한 결정이 적지 아니하거늘, 일개 총독의 制令이나 경무총감의 部令이 어찌 그 정곡을 失함이 없기를 기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집회자유는 우리 인권의 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警令, 즉 ‘당분간정치에 관한 집회 또는

62) 『혜성』 1권 7호, p. 26.

다중의 옥외집합은 금지함. 본령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이라는 간단한 조문으로써 이를 취체함은 너무 부당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⁶³⁾

언론과 집회 자유 취체의 부당함을 온건하게 제기하였지만, 필자인 신태약 변호사는 일제의 고문과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법조인 조직에 앞장선 인사였다.⁶⁴⁾ 당시 '신문은 압수를 항다반으로 하고 발행금지 는 년1차의 항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세 밑에 있는 우리는 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획득에 대한 운동이 우리의 급선무의 하나인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싸워 그것을 획득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혜성』 잡지는 그 '구체적 방안'을 사회명사들에게 설문하여 게재하였다.⁶⁵⁾

- * 지금 이렇다할 구체안이 없습니다 ... 그저 XXXX을 해야합니다 ... 당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유를 주게될 것이니까요 ... XXXX ... 조선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만큼 **각성**이 되었다는 표시이니까요 ... (<정치적으로 각성>- 동광사 주요한)
- *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것은 그것으로써 **대중의 力의 집중과 발산**을 유효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 역시 **대중적 투쟁으로** 그것을 획득하는 것 밖에는 없겠습니다 ... (<대중적 투쟁으로>- 조영근)
- * 관계되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해당법령부터>-천도교청우당 정응봉)
- * 언론집회출판결사 자유확장운동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농청 3층운동도 그 하나요. 출판협회 조선기자대회 등을 통한 ... 결의

63) 辛泰嶽(1926), 「언론집회자유에 관한 각국헌법의 비교연구」, 『학지광』 27호, pp. 572-574.

64) 김효전(2009(2)), pp. 256-257.

65) 이하 인용은, 『혜성』 1권 7호, pp. 27-30.

발표, 당국자 방문이 있었지만, 지상의 결의나 선전에 그쳐 아무 효과가 없었다 … 이제 그 언론집회출판결사자유 확장에 있어서도 **대중적 성장이 강대한 力의 표현**이 아니고는 얻지 못한다.(<대중의 강대한 성장>--김경재)

* 구체안이란 … 곧 力의 표현 … 개성의 자유 인권의 자유평등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 … 우리는 **대중적으로 역량을 기르고 그 실력을 발동**이 긴급한 일이다.(<力의 발동에서>, 어구영)

위 인용 이외에도 몇몇 인사들의 설문 응답내용을 분석해보면, 1)대중투쟁의 필요성 2)계급적 각성 3) 단결 또는 力의 양성과 집중 4) 합법적 투쟁 또는 법의 개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국에 대해 아무리 문서로 요청해도 소용없고, 각성된 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 부르조아 국가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보한 국가는 없으며 전개한 자유 획득운동에서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을 통한 단결된 힘으로 압제에 대항할 것을 고취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목표를 ‘계급투쟁’ 방식으로 쟁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주의가 성장하기도 전에 공산주의 투쟁을 지향하는 당시 모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민족자본가계급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무산계급의 위치에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계급투쟁이란 사실상 민족부르조아를 포함하는 계급연합을 염두엔 둔 ‘대중단결’에 의한 민족투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언론계에 종사하던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⁶⁶⁾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회주의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자유법조단’과 ‘신흥법조단’ 등을 조직한 변호사들은 재판과정에서의

66)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들도 사실은 먼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후 사회주의의 나아가 마르크시즘을 수용하는 것이 20세기초 동아시아 지식인의 일반적 사상궤적이었다.

고문과 민족차별을 직접 목도하고, 계급투쟁 방식이 아닌 합법적 투쟁을 통한 언론의 자유 쟁취운동의 주력군이 되었다. 변호사대회에서 ‘법률전선에서의 최소한의 요구’로서 1)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제도를 완화할 것과 2)보안법 및 보안규칙을 철폐할 것을 제기하였다.⁶⁷⁾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요구 운동은 식민통치당국의 부당한 취체에 저항하여, 피압박 한민족의 신체와 사상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자유주의 운동이었지만, 군국주의시대 식민당국의 극심한 통제로 위축되고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삼천리』 잡지는 일제의 철저한 압박 하 김열의 눈을 피해 다른 나라의 자유운동을 소개하며, ‘중압이 있는 곳에 자유운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자유와 독립 의식 고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⁶⁸⁾ 그러나 그러한 파시스트적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와 함께 배척의 대상이 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역설적으로 높아진 경향도 나타났다.

… 18세기 이후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가 바야흐로 포화상태에 있고 계급대립이 격화된 오늘날에 와서 새삼스러히 다시 높이 평가된다는 것은 기괴한 감동이 없는 바 아니다 … 최근 지식계급의 일부가 새삼스러 자유주의를 재평가하는 심리상태는 요컨대 파시스트적 조류에 대한 對蹠的인 의식으로써 발현된 것이요, 물론 그 계급적 근거는 극히 박약한 것이다.⁶⁹⁾

해방 후에도 한편에선 자유가 과도한 상황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선

67) 李寅(1931), 「법률전선에서의 우리의 최소 요구 변호사대회의 제안해설」, 『동광』 29호(DBHT).

68) 「대만의 자유운동」, 「愛蘭운동의 특징」, 「安南운동의 현세」, 「내몽고 독립운동」과 「자유주의와 각국 의회관」등의 글이 『삼천리』 8호, 8호, 6권 5호, 7호, 7권 6호, 1930~1934 사이에 게재되었다.

69) 홍양명(1936), 「자유주의의 부흥」, 『삼천리』 8권 12호.

미군정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첫째, 언론·보도의 자유 확보, 둘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셋째 민생문제에 책임있는 행정과 함께 제기하고 있다.⁷⁰⁾ 이성적이지 못한 자유의 범람과 이념 대립의 현실은 자유에 대한 통제를 합리화하였고, 사상언론의 자유 쟁취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20세기 후반 줄기차게 전개된 중차대한 난제였던 것이다.

6. 맺음말

망국의 위기감 속에서, 또는 국권 상실의 식민지 상황에서 초보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자유주의적 담론은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과 국가의 자유와 독립에 비중을 두되 양자를 조화하는 지향을 나타냈다. 일본을 통해 전해지고 왜곡된 독일 국가주의적 자유주의는 주권 상실 상황에서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성격으로 나타났고, 개인과 사회 내지 민족 국가의 이해 조절과 대승적 합일을 추구하는 경향은 전통적 공사관념과 영미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공공의 권위에 맞서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쟁취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운동이 어려웠던 일제강점 초기, 신사회 건설의 돌파구를 개인주의적 문화운동에서 찾으려 했던 시도는 주자학과 유교윤리, 또 그에 입각한 가족제도와 조혼 풍습, 반상차별의 신분질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상혁신을 추구하는 형태로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초에 전개되었으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문화건설 보다 사회개조를 추구하는 사조가 중심을 이루는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를 빼앗긴 일제 무단통치 하에서 저항운동도 조직화되기 어려웠

70) 함석훈(1947), 「언론과 사상의 자유」, 『민주조선』 1권 1호, p. 57; 이종모(1948), 「미국의 자유를 이땅에도」, 『신천지』 22호, pp. 100-101.

던 상황 속에서 1919년의 3·1운동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국내외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해외에서 다수의 임시정부 건립과 무장투쟁 등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것과 달리 그 후 눈에 띄는 국내의 독립운동은 전개되지 못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적 요구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요구’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보증하기 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확보를 위한 비교적 적극적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1930년대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요구마저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였다.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초보적으로 실행되면서, 자유 경쟁으로 이해진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자본주의=자유주의의 등식을 성립시키고,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자유가 조선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의 국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느꼈을 것이다. 조선을 병탄했을 때 일본은 자유주의의 나라였다 … 일본인을 기름지게 한 자유는 조선민족에게는 독이었다 … ”는 것이다.⁷¹⁾ 일제강점기 동안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성립되는 가운데 ‘자유’는 일부 (중소)자본가와 지주, 또는 친일세력에 국한되었다.

반전통적 문화운동, 언론자유 쟁취운동을 통해 명맥을 이어간 자유주의는 해방 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주류 사조로 부상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자유주의에 대한 기대가 한편에서 고조되었으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구도 속에서 후자와 불안정하게 연합되어 있었을 뿐 자유주의의 독자적 세력 확장은 어려웠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은 수준에 오른 반면, 자유주의는 도외시 당하여 그 자체조

71) 金東錫(1946), 『민족의 자유』, 『신천지』 통권 7호 제1권 p. 42.

차 허무러지는 형편이다. 양대 사조의 지도자들이 자유주의를 위협한 또는 시대착오의 사회사상으로 낙인하여 조선사회에서 추방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⁷²⁾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회사상의 역사적 주류로 흘러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핵심이 사회주의보다도 자유주의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련에서 공산당 통치의 폐단 등에 대해서 해방 전후 더 심도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 무산대중의 자유를 희생하고 독재적 집권자 ...”로 나타난 공산당의 존재, 소련에서 ‘다수’라고 지칭되는 근로계급인 무산대중도 독재의 대상이지 독재자가 아닌 현실을 지적하였다. ‘경제적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인민전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⁷³⁾

해방 후 정부수립기 이념대립의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함께 실현된 국가건설을 꿈꾸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 ... 자유가 없는 곳에 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적 획일적 기계적 견해에 불과할 것 ... ”이라며⁷⁴⁾, 공산사회를 비판하고 자유를 전제로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지향이 살아있었지만, 그것이 결실할 여건과 환경은 조성되지 못했다 하겠다.

72) 辛寧滿(1948), p. 64.

73) 오기영(1948), pp. 45-46.

74) 李軒求(1948), 『자유의 옹호 - 자유주의비판에 대하여 -』, 『신천지』 22-3. p. 44.

참고문헌

【자 료】

- 『개벽』, 『學之光』, 『신천지』, 『동광』, 『혜성』, 『신민』, 『민주조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이하 DBHT로 약한다.)
 ST 1925, 「자유권과 생존권」, 『개벽』 56호(DBHT).
 『개벽』 2호 <논설> 「세계삼대문제의 파급과 조선인의 각오여하」(DBHT).
 孤蝶(1920), 「個人主義의 略義」, 『개벽』 2호(DBHT).
 金東錫(1946), 「민족의 자유」, 『신천지』 통권 7호 제1권.
 김병덕(1948),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신천지』 통권 22호.
 김병로(1931), 「국가의 근본의와 민중의 자유」, 『동광』 29호(DBHT).
 김윤경(1927), 「개인과 사회」 『동광』 9호; 「자유에 대한 일고」, 『동광』 10호
 (DBHT).
 남궁식(1907), 「非刷新이면 文明을 不可致오 비문명이면 인류를 不可保라」,
 『대한자강회월보』 10호(DBHT).
 塘南人(1918), 「우리 사회의 亂波」, 『學之光』 17호.
 擎山(1926), 「자유주의와 중산계급」, 『개벽』 66호(DBHT).
 文一平(1906), 「자유론」, 『태극학보』 3호(DBHT).
 박영효(1920), 「開闢의 創刊을 聞하고」 『개벽』 창간호(DBHT).
 朴和世(1928), 「經濟自由主義小考」, 『신민』 43.
 北旅東谷(1922(1)), 「東西의 文化를 批判하여 우리의 文化運動을 論함」, 『개벽』
 29호(DBHT).
 북여동곡(1922(2)), 「현중국의 구사상 구문학의 개혁으로부터 신동양문화의 수
 립에 他山의 石으로 현중국의 신문학건설운동을 이야기함」, 『개벽』 30
 호(DBHT).
 설태희(1906),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 『대한자강회월보』 6호(DBHT).
 현상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사적 가치를 논하여 조선당면의 풍기문제에
 급함」, 『청춘』 12.
 송진우(1915), 「사상개혁론」, 『學之光』 5호.
 辛寧滿(1948), 「사상변론의 조선현실과 신자유주의론」, 『신천지』 통권 24호.

- 辛泰嶽(1926), 「언론집회자유에 관한 각국헌법의 비교연구」, 『학지광』 27호.
양 명(1924), 「우리의 사상혁명과 과학적 태도」, 『개벽』 43호(DBHT).
여병현(1908), 「국민자존성의 배양」, 『대한협회회보』 9호(DBHT).
吳基永(1948), 「새 自由主義의 이념 - 독재와 착취 없는 건국을 위하여 -」, 『신천지』 통권 24.
오태환(1920), 「급변하여 가는 친구사상의 충돌」, 『개벽』 1호(DBHT).
玉東奎(1907), 「人民自由의 한계」, 『西友』 2호 1907(DBHT).
友古生(1907), 「갑을 자유문답」, 『대한유학생회학보』 1호.
友洋生(1908), 「일본의 문명관」, 『대한학회월보』 8호(DBHT).
윤상현(1909), 「自由聲」, 『대한협회회보』 10호(DBHT).
윤효정(1908), <我會 本領> 12월 통상회 『대한협회회보』 9호(DBHT).
李 寅(1931), 「법률전선에서의 우리의 최소 요구- 변호사대회의 제안해설」, 『동광』 29호(DBHT).
이종모(1948), 「미국의 자유를 이땅에도」, 『신천지』 22호.
李軒求(1948), 「자유의 옹호 - 자유주의비판에 대하여 -」, 『신천지』 22-3.
滄海居士(1920), 「가족제도의 측면관」, 『개벽』 3호(DBHT).
함석훈(1947), 「언론과 사상의 자유」, 『민주조선』 1권 1호.
허영호(1925), 「자유인과 노예」, 『신민』 8호.
홍양명(1936), 「자유주의의 부흥」, 『삼천리』 8권 12호.

【논 저】

- 姜明喜(2013), 「民国时代中国的新自由主义指向胡适派与研究系自由主义比较研究」 『民国研究』 24.
강의화 저·손승희 역(2007), 『이성이 설 곳 없는 계몽』, 신서원.
강정민(2005), 「자치론과 식민지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권희영(1999),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한국 자유주의-한국 자유주의 연구 서설」, 『한국사학』 17집.
김도형(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7집.
_____ (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집.

- 김효전(2009(1)), 『근대 한국의 자유민권 관념-당시의 신문잡지의 논설분석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7집 4호.
- _____ (2009(2)), 『자유·평등·박애와 근대 한국』, 『헌법학연구』 15권 2호.
- 루돌프 피어하우스 저, 공진성 역(2014),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자유주의』, 푸른역사.
- 문지영(2009), 『자유주의』, 강정인 외,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 _____ (2004),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연구: 문제와 대안적 시각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 박주원(2004),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사회개념의 탄생』,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 박찬승(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 _____ (1991),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 안외순(2002), 『19세기말 조선의 민주주의 수용론의 재검토: 동서사상의 융합의 관점에서』, 강정인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 야나부 아키라, 서혜영 역(2003(1982)), 『번역어 성립사정』, 서울: 일빛.
- 윤상현(2013), 『1920년대 초반 식민지조선의 자유주의와 문화주의 담론의 인간관·민족관』, 『역사문제연구』 31호.
- 이나미(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정식(2003),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동진(2005), 『식민지에서의 ‘개인’, ‘사회’, ‘민족’의 관념과 자유주의: 안창호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 정미량(2012),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지식산업사.
- 정용화(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 _____ (2003), 『서구 인권 사상의 수용과 전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 최수일(2008), 『‘개벽’연구』, 소명출판.
- 페어뱅크 존 F·골드만 멀(2005), 김형중·신성곤 역, 『신중국사』, 까치.
- 한정선(2004), 『다이쇼민주주의의 재평가』, 『동양사학연구』, 제87집.
- 章 清(2012), 『1940年代:自由主义由背景走向前台』, 『中国思潮评论自由主义诸问题』 上海古籍出版社.

- _____(2004), 『胡适派学人群与現代中国自由主義』, 上海古籍出版社.
- 楊貞德(2011), 『自由, 自治そして 歴史-近代中國政治思潮における ‘個人’論-』,
村田雄一郎 편, 『リベラリズムの中国』, 有志舎.
- 閻潤魚(2007), 『自由主義与近代中国』 新星出版社.
- 水羽信男(2007), 『中国近代のリベラリズム』, 東方書店.

원고 접수일: 2014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The Formation of Liberalism and its Failure
in Early 20th Century Korea

Kang, Myung Hee*

The ideas of liberalism were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providing an ideological framework for the nation-building of a wealthy and strong state. The main characteristic of Korean liberalism formed at this time was the harmonious pursuit of individual liberty and national independence.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political liberal movements were repressed by Japanese colonial rule. Instead, Korean intellectuals expressed their liberal concerns through cultural aspects, by criticizing dogmatic Confucian culture and by aiming to build a ‘New Culture’ in which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were guaranteed.

Liberalistic attempts of the early 20th century Korea were also expressed as movements of freedom of speech (and of association). Liberalism was never accepted affirmatively, and has even been negated as an ‘out-of-date’ ideology which advocated capitalist interests while socialism rose as a mainstream ideology in Korea after the 1920’s. Liberalism in Korea existed by providing a supporting role to ‘Liberal Democracy’ and as a collaborator of nationalism after National Liberation in 1945.

*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ansei University

